

## 최봉문 목원대학교 교수

존경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여러분!

2020년 회원여러분들의 선택으로 행.재정부회장으로 당선되어 학회 회장단이 되었고, 2022년 학술부회장으로 당선되어 2년간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28대 학회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회장단의 일원이 되었던 처음 2년은 오랫동안 학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장단이 되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실천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했었고, 학술부회장으로 활동하던 2년 동안은 대단한 변화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도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작은 성과라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원님들께 만족할만한 성과나 괄목할만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는 저의 부족한 능력과 한계가 있었다고 자인합니다. 그러나 이제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그동안의 부회장으로서 보여드렸던 모습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실천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부회장으로 출마하면서 드렸던 공약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시작되지도 못하였거나, 성과를 이끌지 못한 제안들이 있습니다. 이제 학회장으로 다시 출마하면서 새롭게 정리하여 공약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원여러분께 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가고, 학회에 바라는 요구들을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시면 학회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약 해오던 회원맞춤형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회의 중요한 행사들을 잘 준비하고, 모든 행사에 회원들의 참가기회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우리 학회가 주관이 되어 개최하게 되는 ICAPPS(International Conference Asia Pacific Planning Societies)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준비는 이미 27대 학회장님을 중심으로 국제위원회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회의 행사는 얼마나 많이 열렸는가보다, 국토·도시 분야의 정책을 선도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성과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회의 학술전달의 수단인 국토계획, IJUS, 도시정보, 도시TV, 도서발간, 소통마당 등의 학술적인 기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학회의 고유기능인 연구와 정보제공의 역할을 강화시켜 도시계획이라는 학문분야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습니다. 국제화의 흐름 속에 국내 학문이 가지는 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계획의 SCoup 등재를 지속 추진하고, IJUS를 수준높은 SSCI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국제학술대회 그리고 춘·추계 학술대회, 지회 학술대회, 전문위원회 세미나 등 학회의 각종 행사가 회원들이 주체가 되는 참여의 장이 되고, 타 학문분야와 교류하고, 일반 시민에게도 문호를 넓혀, 우리 학회의 행사들이 국토·도시 계획 분야의 위상제고와 영역확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학회 회장단과 관련 위원회 그리고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토기본법의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이나 국토도시계획법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이 무시되고, 헌법이 국토·도시계획에 부여하고 있는 공공복리의 증진이나 국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 등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토·도시계획의 최고의 전문 학술기관으로서 학회의 역할을 찾겠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협상과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 제도와 기술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하고, 계획가의 지위향상 및 국가발전에 공헌을 위한 학술적인 노력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학회가 해결해야 할 몇가지 시급한 문제들은 조속히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나타나는 외부조건변화와 학회가 준비해야 하는 각종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학회 재정의 건전화와 충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학계에 계시는 회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학회논문지 게재논문의 편향성, 심사 지연 등의 문제를 관련 위원회와 함께 협의하여 해결하고, 기술계나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설계작품이나 계획성과물 등을 학술적인 실적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또 회원들이 학회에 친근해지고,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먼저 연락하고, 친절하게 대응하는 학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회 회장으로서 회원여러분과 함께 지키고 만들어 갈 학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토·도시계획의 근본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이론과 기법들을 만들어 국토·도시계획의 위상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된 학문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우리 학회를 이끌어 오신, 학회 원로들께 배우고, 학자적 동반자인 선.후배님들과 함께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찾아 학회의 미래로 만들어가면서 학회의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28대 학회장 입후보자  
최 봉문 올림